

'자통법' 시행 앞두고 금융권 지각변동?

은행들 "증권에 돈 뺏기느니 증권사 인수"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에서 증권사를 인수하려는 물밑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신규 설립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은행권의 증권사 인수합병(M&A)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이 증권사 인수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은행, 보험업, 증권 등 금융업종간 경쟁은 물론 대형 금융그룹간 무한경쟁이 펼쳐지기 때문에 투자금융(IB)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히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현재 증권사 인수에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이는 곳은 국민은행이다.

신한은행이 국토교통부신한증권, 우리은행이 우리투자증권을, 하나은행이 대우증권을 보

금융그룹간 무한경쟁시대... "업무영역 넓혀야 산다"

국민·농협 증권사 M&A 추진...기업은행 신설 검토

유한 반면 국민은행은 리딩뱅크이면서 주요 대형은행 중 유일하게 증권 계열사가 없다.

이 때문에 국민은행은 최근 KGI증권사 인수전에 나섰다. 증권사 인수 후보에 올라놓고 물밑 접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누리투자증권은 미국계 투자회사인 JTK인베스트먼트 등 외국인이 대부분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한누리증권이 인수 검토 대상 중 한 곳인 것은 맞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M&A협상을 진행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증권사 인수 뿐 아니라 신규 설립 혹은 KB자산운용을 통한 증권업무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업계에선 국민은행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신규 설립보다는 기존 증권사를 인수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그동안 증권업 진출 의사를 여러 차례 나타냈던 기업은행도 신규 설립 또는 기존 증권사 인수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증권사 신규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히면서 인수 뿐

아니라 신규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만약 증권사를 인수한다면 IB업무가 강한 증권사가 인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 세종증권을 인수 설립한 NH투자증권을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농협 관계자는 "농협이 NH투자증권의 주식을 300만주 정도 장내 매입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농협중앙회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지원해 규모를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아니지만 증권사 설립 요건 완화 방침이 현재 진행중인 KGI증권사 인수 협상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KGI증권 인수와 관련해 솔로몬저축은행-KTB자산운용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상태며 200억~300억원대의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가정도 인터넷 전화시대 LG데이터콤이 20일 국내 처음으로 가정용 인터넷전화 서비스인 'myLG 070'을 본격 상용화한 가운데 모델들이 인터넷전화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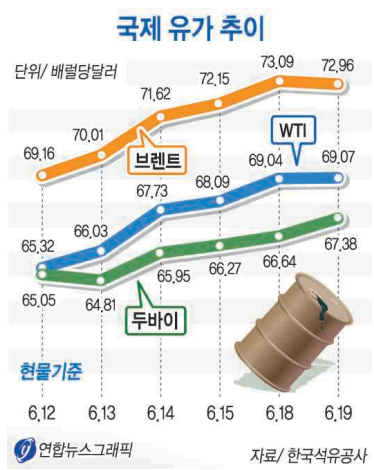
두바이유 배럴당 67.38달러

"한국 휘발유값 세계에서 7번째로 비싸"

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상승흐름을 지속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67달러선을 넘어섰다.

20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19일 거래된 두바이유 현물은 전날보다 배럴당 0.74달러 오른 67.38달러에 가격이 형성됐다. 이날 기록한 두바이유 현물가는 지난해 8월25일의 배럴당 68.79달러 이후 가장 높은 것이다. 종전 두바이유 가격 최고기록은 지난해 8월8일의 72.16달러다.

뉴욕과 런던의 유가선물은 흐름이 엇갈렸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서부 텍사스산 중질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0.01달러 오른 69.10달러에 거래되는 강보합세를 보였으나 런던석유거래소(ICE)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은 0.34달러 내린 배럴당 71.8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국제석유 시장에서는 수급을 둘러싼 호재와 악



자료/한국석유공사

재가 교차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일 독일 대외기술협력단(GTZ)이 발표한 '2007 국제 연료가격' 보고서 발표 결과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휘발유와 경유 값은 각각 0.16달러, 1.33달러로 전 세계 171개국 가운데 각각 7번째와 1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1800-800 동반 붕괴...조정 시작 되나

<코스피> <코스닥>

증권주 10%이상 급락이 투자심리 위축 외부 악재 없어 재상승 패턴 반복될 듯

거침없는 상승을 지속해 온 국내 증시가 20일 급락하면서 본격적인 조정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24.06포인트(1.33%) 내린 1,783.79로 마감, 1,800선이 붕괴됐으며 코스닥지수도 22.70포인트(2.77%) 떨어진 797.27로 거래를 마쳐 800선이 무너졌다. 코스피지수는 5일, 코스닥지수는 7일만의 하락이다.

증권의 원인은 그동안 상승장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증권주가 대부분 10%가량 하락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의 신용거래 감독 강화와 증권사 신설 허용 발표로 강도주인 증권주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급등 부담이 한꺼번에 노출돼 투자심리를 급랭시켰다.

이날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외국인인 3천400억원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매도 공세를 강화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도 장중 3천억원이 넘는 순매수 규모를 1천500억원으로 줄이면서 매수세를 거둬들이는 모습을 보였다.

중시의 낙폭이 커지자 증시의 상승 에너지가 바닥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단기 급등 부담 외에는 특별한 외부 악재가 없어 상승 추세가 꺾였다고 단정짓기는 이르다는 시각이다.

이영근 한화증권 연구원은 "단기 조정 가능성이 상존해 있던 상황"이라며 "개인 매수세를 기반으로 끌어오던 상승장이 신용거래잔고 부담 등으로 한계에 부딪힌 것

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화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새로운 악재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가격 급등에 되돌림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며 "새로운 악재가 출현하지 않는다면 3~4일 정도 조정이 지속되다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중현 국토교통연구원 연구원은 "신용거래 감독 강화 영향으로 개인 매수세가 다소 위축될 수는 있겠지만 증시 전반의 수급 상황은 여전히 좋기 때문에 증권주의 조정만 진정되고 나면 재상승하는 패턴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고 분석했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은 "7월 초, 주가 상승 속도와 기업 실적과의 겹(격차)을 확인할 수 있는 2-4분기 어닝(실적) 시즌이 전반기의 전반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정필수기자 bungi@kwangju.co.kr

국내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차는?

BMW

총 4만5천864대

20일 한국자동차공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말 현재 국내에 등록된 수입 승용차는 총 22만7천935대(GM대우 스테이션맨 제외)로, 이 가운데 BMW가 가장 많은 4만5천864대(20.1%)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메르세데스-벤츠 3만5천634대(15.6%), 렉서스를 포함한 도요타 3만2천621대(14.3%), 크라이슬러 1만9천369대(8.5%), 포드 1만6천466대(7.2%), 아우디 1만4천153대(6.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도 혼다(1만2천977대), 볼보(1만2천84대), 폴크스바겐(1만1천404대) 등이 1만대 이상 등록된 브랜드에 속했다.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이 등록대수 1, 2위를 차지한 것은 국내 시장에 일찌감치 진출한 점도 크게 작용했다.

BMW는 코요통상사를 통해 1987년 3월부터, 메르세데스-벤츠는 한성자동차를 통해 1987년 1월부터 각각 판매되기 시작했다.

차령(차의 나이)이 10년 이상된 차량이 BMW의 경우 전체 등록대수의 12.4%인 5천701대, 메르세데스-벤츠의 경우 전체 등록대수의 19.5%인 6천943대에 해당한다는 점이 이를 반영한다. /연합뉴스

직장인 재테크 1순위는 '예·적금'

직장인들은 재테크 방식으로 안정적 저축·예금을 가장 많이 이용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취업·경력관리 포털 스카우트(www.scout.co.kr)는 최근 조사 회원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재테크 방법'을 조사한 결과, '적금·예금'을 꼽은 응답자가 33.5%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펀드'를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26.8%로 두번째로 많았고, 'CMA·

MMF'(20.5%), '주식'(11.3%), '부동산'(7.8%)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연봉 중 재테크에 쓰는 비율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연봉의 20~30%'라는 응답자가 18.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 이상'(16.7%), '10% 미만'(14.3%), '30~40%'와 '40~50%'(각 14.0%), '10~20%'(11.6%), '재테크를 못하고 있다'(11.1%) 등이었다. /연합뉴스

대한상의, 주요업종 하반기 전망해보니

조선·기계 '쾌청' 전자·반도체 '호전' 건설·화학 '부진'

올 하반기 조선·기계업종은 호조세를 이어가고 전자와 반도체는 상당히 호전되지만 건설과 석유화학 등은 부진할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는 20일 '주요업종의 2007년 하반기 실적 및 하반기 전망조사' 보고서를 통해 업종별 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업종의 경기 전망을 공개했다.

상의 보고서에 따르면 고가 수출 물량의 출하가 본격화되고 있는 조선과 국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기계업종은 생산과 수출, 내수 등이 모두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의 경우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회복 기

대감에 따라 상반기 부진했던 내수부문의 상반기보다는 호전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

D램 가격의 폭락으로 상반기 부진했던 반도체는 하반기 D램의 가격 반등과 이를 위한 업계의 생산량 조절 노력 등에 힘입어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건설의 경우 하반기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부동산 관련 규제가 본격시행될 예정이어서 민간건설 부문을 중심으로 부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상의는 전망했다.

석유화학은 채산성 악화와 내수 부진이 이어져 어려움은 지속될 것이며 수출과 생산 증가율이 각각 12.4%와 6.3%에 달하겠지만



이는 작년 하반기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상의는 밝혔다.

자동차는 내수의 경우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수출과 생산은 작년의 부진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다소 높은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이다.

이밖에 중국산 저가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섬유는 구조조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회복 기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땅 채권보상판 양도세 감면 확대 검토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때 양도소득세 감면폭을 15%에서 20%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건설교통부 박상우 토지기획관은 20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토지보상금을 채권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을 20%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부처간 협의 중이며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받을 경우 양도세 감면율이 10%, 채권으로 받을 경우 15%가 적용되고 있는데, 채권보상의 양도세 감면율이

5%포인트 상향조정되면 현금 보상이 줄고 채권보상이 늘 것으로 기대된다.

박 기획관은 전체보상금에서 채권보상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해 "토지공사가 지급한 보상금을 분석해 보면 작년에는 6.2%에 그쳤는데 올해는 20%까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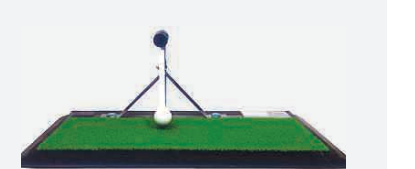
그는 향후 풀릴 토지보상금 규모에 대해 "전국적으로는 20조~22조원 정도를 추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두연양행, 마스터 골프스윙연습기 출시

두연양행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실제 골프스윙 감각을 익힐 수 있도록 고안된 '마스터 골프스윙연습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오래된 재질의 골프공을 스윙연습기에 장착해 그물망이나 볼 공급기가 필요없으며, 볼의 무게도 실제 골프공과 같아 스윙감을 살려준다.

또 공이 날아가지 않고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하므로 스윙 후 고개를 드는 '헤드업'이 자연스럽



게 고정된다는 게 회사측의 설명이다. 스윙매트의 크기는 가로 70cm, 세로 45cm, 중량은 12kg 등으로 임팩트때 안정된 스윙 연습이 가능하다. 문의 02-766-1890.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